

광주·전남 시도민 공항 이전 찬성 70%

광산구·무안군 찬성률 크게 높아
정부, 전방위 지원책 마련 본격화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의가 20년 넘게 표류한 숙원 과제를 넘어, 이제는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본격 추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 주민 10명 중 7명이 이전 찬성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과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무등일보, 광주MBC 등 3사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광주·전남 성인 1606명을 조사한 결과, 광주 응답자의 71%, 전남 응답자의 64%가 이전에 찬성했다.

이는 2년 전보다 각각 16.7%p와

24.2%p나 오른 수치다. 특히 광산구와 무안군에서도 찬성이 70% 안팎을 기록해 사회적 합의 확대를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광주 50대 이상, 전남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청년층은 소음·접근성 부담을 이유로 반대가 여전히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반대는 이전 자체보다 발전 전략과 생활 인프라 설계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대안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소음·환경 문제 해소와 종전 부지 개발, 첨단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이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무안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력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소음·안전, 인구 이동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실 산하 6자 협의 TF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전남도·무안군과 기재부·국방부·국토부가 참여하는 국가 단위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이전 논의가 국책사업 차원으로 격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의 무안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종전 부지를 활용한 개발 방안도 병행하지만, 무안군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 개선 등 체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다. 과거 추진 무산 경험을 거론하며 정부의 확실한 개입도 요구했다.

함평·해남·고흥 등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며 갈등 요인이 생겼지만, 광주·전남 전반에선 장기적 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통합공항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지역혁신

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광주는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전남은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확충 과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특별법 개정, 재원 분담, 절차 합리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는다. 국책사업 지정, 보상 법제화, 갈등 해소 모델 마련이 핵심 쟁점이며, 국회 차원의 조당적 협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업 일정은 2027년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이전을 완료하고, 2035년 통합공항 개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과 법적 기반이 뒤따라야 일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 책임 강화와 사회적 동의 확산이 공항 이전의 속도를 높이고, 파격적 보상과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정덕기자



가을 길목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산책로에 붉게 물들어 가는 애기 단풍 아래서 일곡도서관 직원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북구청

광주·전남 올해 가장 더운 여름...평균기온 26.1도

6월부터 시작된 기록적 폭염
장마·폭우 모두 이례적 기상

광주·전남 지역이 올해 여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계절을 보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평균기온은 26.1도로 1973년 관측 이

래 최고치였다. 지난해 기록한 26.0도를 불과 1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단순한 일시 현상을 넘어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여름은 장마 종료 뒤가 아닌 6월 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돼 이례적이었다.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7월 9일 광주 조선평에서는 38.3도까지 치솟았다. 폭염일수는 29.6일로 평년보다 22일 많았으며, 전남 해안 4개 지역은 관측 이래 최대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열대야도 목포에서만 45일 발생해 평년의 2.5배 수준이었다.

반면 장마는 6월 19일 시작해 7월 1

일에 끝나 역대 두 번째로 짧았고, 짧은 기간 집중된 폭우로 광주·순천·강진 등에서는 7월 최대 강수량 기록이 새로 세워졌다.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올여름은 기상학적 이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장기 가뭄 같은 형태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상재해 대응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홍석기자

공유자전거 ‘타랑게’ 존치 여부 시민 의견·정책 용역 통해 검토

타랑게 상반기 470명 이용
민간 공유사업자 모두 철수

광주시가 운영하던 공유자전거 ‘타랑게’ 사업이 예산 부담과 이용률 논란 속에 현재 잠정 중단된 가운데, 향후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전체 자전거 정책이 시민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타랑게는 2020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한 공공 무인자전거 서비스를 남도 사투리의 친근한 어감을 살려 이름 붙여졌다. 초기에는 52곳 대여소·200대 자전거로 출발해 두 차례 시범사업(2020·2024년)을 거쳐 4년간 운영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상무지구, 광주천, 문화전당 등 주요 거점에 구간이 확대돼 일평균 이용객이 47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운영 내내 실적과 예산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2021년에는 하루 평균 64명, 2023년 115명 등 이용자 저조했으나 2024년 대수 확충과

그럼에도 시의회가 “도시 내 전용자전거도로 부족, 민간사업자 철수, 운영방안 부실”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며 지난해 10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는 관련 용역비만 편성된

상태로, 타랑게 존치 여부와 운영방안은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시가 9월 초부터 진행한 시민 설문에는 이를 만에 5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절반이 넘는 시민이 타랑게 재운영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식 운영안을 추진할 경우 대전시 공유자전거 ‘타슈’ 사례에 비해 1년에 80억~100억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 한정된 재정에서 ‘공유자전거 올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타랑게를 포함한 전체 자전거 정책을 2025년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건설(일명 ‘대자보’)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생활교통 환경 개선 등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공유자전거 사업은 전체 교통정책의 한 축으로만 편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민간사업자(카카오T 바이크)도 광주에서 철수한 상황이고, 시는 이용률 저조·도시 인프라 부족 등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타랑게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최종 예산 반영과 사업 재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고홍석기자

전국 첫 시행 ‘광주,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정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내년 전국 확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

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생뿐 아니라 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광주시는 기대했다. /고홍석기자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자리의 모든 것!

일자리통합정보망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AI 플랫폼

job.jeonnam.go.kr |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61)287-1142~3

